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규보 설(說)에 나타난 화법 교육적
특성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전공
전 민 하

이규보 설(說)에 나타난 화법 교육적
특성 연구

강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전공

전 민 하

인 준 서

전민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학교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소통하며 관계 맺는 ‘이론’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그 ‘실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법과 문학의 통합 교육을, 이규보 ‘설’이 갖는 화법 교육적 특성 연구를 통해 모색하였다. 먼저, 현행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문학 교과서를 분석해,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해 설득단원에서 ‘연설’ 학습을 어떤 제재와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 본 후 이규보 ‘설’과 통합 할 수 있는 부분을 밝혔다. 문학 교과서 분석에서는 각각의 ‘설’을 어떤 단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학습활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과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현행 교과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규보 ‘설’ 분석을 통해, 화법교육 연설 단원의 제재로 활용했을 때의 적절성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규보의 12편의 ‘설’ 작품 중에서도 <경설>, <괴토실설>, <뇌설>, <슬견설>, <이옥설>, <주뢰설>을 분석하였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잘 드러난 작품 <경설>과 <슬견설>, 이성적 설득 전략의 활용이 주를 이루는 <괴토실설>, <뇌설>, <이옥설>, <주뢰설>을 통해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을 밝혔다.

‘설’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감동과 교훈을 준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앞으로의 화법 수업에서 ‘설득’ 단원의 제재로 이규보 ‘설’의 설득적 말하기 방식을 학습하는 활동은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설득 전략을 자신의 말하기에 적용함으로써 설득적 말하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4
II. 현행 교과서에서의 화법 교육과 ‘설’ 교육 양상	9
1. 화법과 작문 교과서 ‘설득’ 단원의 현황	9
2. 문학 교과서에서의 이규보 ‘설’ 교육 양상	20
1) <이옥설>	20
2) <괴토실설>	24
3) <경설>	26
III. 설득의 개념과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	29
1. 설득의 개념과 ‘설’의 갈래적 특성	29
1) 설득의 개념과 방법	29
2) ‘설’의 갈래적 특성	33
2. 문답·유추와 이성적 설득 <괴토실설>, <뇌설>, <이옥설>, <주뢰설>	35
3. 발상의 참신함과 감성적 설득 <경설>, <슬견설>	46
IV. 이규보 ‘설’을 활용한 설득 전략 사례	54
1. 이성적 설득 전략 사례	56

2. 감성적 설득 전략 사례.....	64
V.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7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금 우리의 생활은 말하고 듣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통’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흔히 자기 PR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알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그 중에서도 현대 사회는 개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이다 보니, 나와 다른 남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적 말하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제 소통 능력은 생활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도 큰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 경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나 견해, 입장을 지닌다. 이때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대립이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립이나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 견해, 입장을 밝히면서 적절하게 소통 하는 것이 중요하다.¹⁾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학교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소통’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소통하며 관계 맺는 ‘이론’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그 ‘실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국어교육은 아직까지도 입시위주의 ‘지식중심’, ‘강의중심’, ‘교수자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일방적인 지식 주입교육에서 벗어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인재를

1) 박영민 외,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3.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학습자중심’의 전인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

‘국어’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국어’는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담화나 글, 작품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음 목표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과 실질적인 국어 능력 향상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고는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어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화법과 문학의 통합을 이루는 교육이 필요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과 문학 영역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
국어	학습자는 학교생활을 통해 폭넓은 국어 경험을 쌓으며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더 깊이 있는 사고와 효과적인 소통, 발전적인 문화 창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말이나 글에 책임지는 태도를 지니고,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쁨으로써 국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화법	화법은 말을 통해 생각과 느낌, 경험을 교류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행위이다. 학습자는 듣기·말하기를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정서를 교감하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창조적인 말 문화를 계

	<p>승·발전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화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화법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바람직한 듣기·말하기의 태도를 갖추으로써 화법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p>
<p>문학</p>	<p>문학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과 미의식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관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p> <p>‘문학’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산된 문학의 제반 양상을 이해하고 향유하며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진다. 이를 위하여 문학의 갈래, 문학의 역사, 작품의 수용과 생산 원리를 학습하는 한편 문학의 가치와 미를 느끼고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감상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한다. 아울러, 통합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p>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는 학교생활을 통해 폭넓은 국어 경험을 쌓으며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와 분리된 것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말이나 글에 책임지는 태도를 지니고,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을 국어과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는 곧 화법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화법 영역에서도 역시 ‘학습자는 듣기·말하기를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중시하였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자신을,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 활동과 언어능력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학영역에서도 자신의 삶과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실질적 국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문학에서의 통합적 사고 활동을 중시하고 있음을 ‘통합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데 도움을 주는 문학적 제재로 ‘설’을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설’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설득적 말하기 활동을 도와주는 좋은 학습 제재가 된다. ‘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짧은 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설’은 내용도 딱딱하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또한 재미와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교훈적인 뜻도 함께 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명확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설’ 중에서도 이규보의 ‘설’에 초점을 두었다. 이규보의 ‘설’은 그 소재가 다양하며 자유롭다. 생활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인 이, 술병, 집수리 등을 소재로 그 의미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말하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 창의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설’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의 화법 교육을 넘어 전인적 학습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선행논문들을 화법교육 측면과 이규보 ‘설’의 교육적 활용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화법교육 관련 논문을 살펴보며 기존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화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박은희²⁾는 말하기, 듣기 교육의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의 주체는 학생임을 강조하며 일반화된 원리나 규칙에 대한 맹목적 학습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의 실제적 자기 인식을 언어 성장의 중심 요인으로 삼는 수업이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최운정³⁾은 화법교육에서의 효과적인 연설교육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말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연설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7차 교육과정부터 심화 과목인 화법에 연설 단원을 개설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과서의 학습활동 분석과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사례 제시를 통해 현장감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서아⁴⁾는 화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동안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화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화법역량이 사회에서 필히 요구되는 반면, 학교 교육에서 타 교과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화법 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화법이 사회·문화적 연관도가 큰 교과인 동시에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타 교과들과 비교하여 생활에서 바로 응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적합한 교과임을 강조했다. 화법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관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주미정⁵⁾은 문학교육 중에서도 고전문학교육에서의 독서토론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고전문학 수업이 창작 당시의 사회상과 표현에 대

2) 박은희,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하여: 중학교 교과서 분석과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3) 최운정, 「고등학교 화법에서의 연설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4) 김서아, 「화법교육의 정체성과 방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5) 주미정, 「고전문학에서 독서토론의 필요성과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한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최근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문학 수업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작품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능동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능동적 감상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고전문학 수업에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교수-학습 방법인 독서토론을 적용한다면 학습자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론적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독서토론 모형 설계를 통한 실제 수업을 해 봄으로써 그 효과까지 밝힌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문학과 화법교육의 통합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와 같이 국어교육에서의 화법 교육은 교육을 넘어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법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인성 함양에도 영향을 주므로 전인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규보 ‘설’의 교육적 활용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이규보 ‘설’ 교육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은진⁶⁾은 이규보의 ‘설’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훌륭한 문학작품의 감상과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글쓰기 과정을 보여주고, 그 과정의 모방을 시작으로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글쓰기는 일종의 문제해결 과정이며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함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글쓰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전문학인 ‘설’과 작문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엄윤숙⁷⁾은 이규보 ‘설’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통한 글쓰기 교육 방안과 말하

6) 정은진, 「이규보 설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적용」,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7) 엄윤숙, 「‘說’ 문학의 교육적 활용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연구를 통해 ‘설’의 다양한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글쓰기 교육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서술 방식을 활용한 이규보의 ‘설’을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주제의 선정과 소재의 선택 및 다양한 표현 방법의 습득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말하기 교육에서는 토론교육과 설득적 말하기에 ‘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교수 방안임을 밝혔다.

채수아⁸⁾는 이규보 ‘설’에 대한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통해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고전문학교육이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전은 학습자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문학 생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말하였다. 또, 고전을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문학의 전통에 대해 배우게 됨으로써 한국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깨달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손동주⁹⁾에서는 어구 풀이나 주제 파악 정도로 그치고 있는 고전 문학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이규보의 ‘說’을 수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으로 ‘설’을 통한 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이규보의 ‘설’을 자신의 실생활이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와 고전 산문 문학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최홍원¹⁰⁾은 이규보의 ‘설’이 사회적 비판과 진실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표현 측면에서 가상적 대화 형식을 통해 새로운 해결을 제시한다는 특성을 활용해 국어교육에서 이규보의 ‘설’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교육 연구를 제안하였다. 최근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

8) 채수아, 「이규보 說의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9) 손동주, 「이규보의 ‘說’ 교육 방안 연구-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0) 최홍원, 「설(說)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 교육의 실행 가능성 탐색」, 『문학교육학』 제 5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을 내세우면서 6개 교과 역량 중 하나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명시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비판적 사고교육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과정에서 찾았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이규보의 ‘설’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설’을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과 말하기 교육, 읽기와 쓰기,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비판적 사고교육 등 다양한 국어 영역의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은 의미 있는 시도들이다. 특히 ‘설’과 언어기능 능력간의 통합을 시도한 여러 논문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설득적 말하기에 초점을 둔 화법교육과 문학교육의 통합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법교육과 문학교육의 통합을 ‘설’을 통한 설득적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 문학의 한 갈래인 ‘설’과 화법 교육을 통합해,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이규보 ‘설’이 갖는 화법 교육적 특성 연구를 통해 ‘설’이 화법교육의 제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전체로 설정하였다. 고등학교는 학습자가 사회로 나가기 전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학습을 통해 당장, 3학년 입시 때의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시 면접에서 자신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면접관을 설득하는 것 역시 설득적 말하기의 한 방법이다.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현행 고등학교 화법과 문학 교과서를 분석해 볼 것이다.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해 설득단원에서 ‘연설’ 학습을 어떤 제재와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 본 후 이규보 ‘설’과 통합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것이다. 문학 교과서 분석에서는 각각의 ‘설’을 어떤 단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학습활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교과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규보 ‘설’ 분석을 통해, 화법교육 연설 단원의 제재로 활용했을 때의 적절성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 현행 교과서에서의 화법 교육과 ‘설’ 교육 양상

1. 화법과 작문 교과서 ‘설득’ 단원의 현황

2009 교육과정이 반영된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박) 4종의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대부분 목차가 크게 4단원으로 나뉘어있다.

미래엔	I 표현과 소통 II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 III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 IV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 V 표현과 문화
비상교육	I 화법과 작문의 본질
지학사	II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 III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
천재(박)	IV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과 지학사, 천재(박)은 모두 대단원명이 동일하다. 미래엔은 1단원을 ‘본질’ 대신 ‘표현과 소통’으로 설정하고 마지막에 ‘표현과 문화’라는 단원을 추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목차에서 ‘설득을 위한 화법’ 부분만 따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박)
2. 설득을 위한 화법	2. 설득을 위한 화법 (1) 설득 전략을 활용한	2. 설득을 위한 화법 (1) 설득의 전략을 통한	2. 설득을 위한 화법

의 과정과 실제 (1) 연설 (2) 토의 (3) 토론 (4) 협상	연설 (2)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3) 논증을 적용한 토론 과 비판적 수용	연설 (2)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3) 쟁점 분석을 위한 토 론 (4) 설득 담화의 비판적 수용	(1) 연설과 설득 전략 (2) 토의와 합리 적 문제 해결 (3) 토론과 필수 쟁점 (4) 비판적 이해 와 반박
---	---	---	---

위의 표를 보면 비상교육과 지학사, 천재(박)은 세부 단위명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엔은 세부 목표에서도 연설, 토의, 토론에 ‘협상’ 단위를 별도로 구성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을 위한 화법’ 중에서도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연설’ 단원의 제재와 학습활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설득을 위한 화법]
(18)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설득은 청자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므로 논리에 의한 이성적 설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과 같은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더불어 감성적 설득 전략도 사용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도록 한다.

(18)번 성취기준은 효과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 뿐 아니라 화자의 공신력과 감성적 설득 전략도 중요함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화법과 작문 교과서 연설 단원의 학습목표는 모두 (18)번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비상교육을 제외한 미래엔, 지학사, 천재(박) 교과서는 모두 (18)번 성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비상교육은 (18)번 성취기준을 화자의 공신력과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분리하여 두 개의 학습목표로 제시하였다.

미래엔	
학 습 목 표	<p style="text-align: center;">Ⅲ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p> <p>2. 설득을 위한 화법의 과정과 실제</p> <p>(1) 연설</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학 습 활 동	<p>1. 제재: <u>유엔 사무총장 보고 연설문</u></p> <p>(1) 이 연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p> <p>(2) 이 연설의 내용을 들으며 메모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 보자.</p> <p>(3) (2)의 활동을 참고하여 이 연설의 설득 전략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보자.</p> <p>2. 제재: <u>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설 자료</u></p> <p>(1) 이 연설은 성공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연설자의 공신력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말해 보자.</p> <p>(2) 다음은 어떤 부분에서의 비언어적 표현인지 짐작해 보고, 이러한 표현의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p> <p>3. 제재: <u>학생회장 후보 연설</u></p> <p>(1) ㉠와 ㉡에서 청중을 보는 시선과 어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말해 보자.</p> <p>(2) ㉢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p> <p>(3) ㉣에 들어갈 새로운 내용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서 연설해 보자.</p>

미래엔은 연설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세 가지 제재를 선택하였는데, 모두 연설문이다. 첫 번째 제재는 유엔 사무총장 보고 연설문으로 (1)에서는 연설을 하기 전에 연설자가 준비했을 사항을 정리해보는 활동으로 주제와 국제 사회적 상

항, 청중 분석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연설을 하기 전에 목적과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 수집과 청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2)에서는 연설의 내용을 구조화해 보여주며 연설이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으로 되어있음을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개요작성의 방법도 알려주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빈칸을 채우며 연설의 중심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3)은 학습목표와 관련된 활동으로, 연설에서 쓰인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찾아보며 제재1번의 학습을 마무리 하고 있다.

두 번째 제재는 김연아가 연설한 평창 올림픽 유치 연설문이다. 이를 통해 (1)번 활동에서 위의 연설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연설자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2)번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제시하며, 해당 표현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했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제재의 (2)번 활동이 세 번째 제재의 (1)번 활동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제재인 학생회장 후보 연설문을 읽고 (1)번 활동에서 두 번째 제재의 (2)번 활동을 순서만 바꿔 제시하고 있다. 즉 이번에는 해당 부분을 주고, 그 부분에서의 시선과 어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았다. 비언어적 표현 활동을 반복하여, 연설에서의 비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번 활동에서는 연설문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 수용이 중요함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 왜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이유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주장과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연설 단원의 마지막 학습활동인 (3)번 활동은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연설문을 써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세 개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설문을 통해, 연설에서 중요한 설득전략과 화

자의 공신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과 비판적 수용 등 다양한 화법 활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연설문만 다루고 있어 학습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비상교육	
학 습 목 표	<p style="text-align: center;">Ⅲ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p> <p>2. 설득을 위한 화법</p> <p>(1) 설득 전략을 활용한 연설</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할 수 있다. •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p>제재: 미국 ‘워싱턴 평화 행진’에서의 마틴 루서 킹 연설</p> <p><원리 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이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p>(1) 다음은 이 연설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설의 화자가 갖추고 있는 공신력을 평가해 보자.</p> <p>(2) 이 연설에 대한 다음 두 학생의 감상을 참고하여 이 연설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파악해 보고, 그 효과를 써 보자.</p> <p><원리 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연설을 하려고 한다.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p>(1) 평소 자신의 성품이나 평판이 연설을 위한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 보자.</p> <p>2. 다음에 제시된 연설의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마련해 보자.</p> <p>3. 앞의 1과 2를 바탕으로 하여 연설을 해 보고, 친구들의 연설을 평가해 보자.</p> <p>(1)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해 보자.</p> <p>(2)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친구들의 연설을 평가해 보고, 가장 설득력 있게</p>

비상교육은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을 통해 연설 단원을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제재를 학습한 뒤에 원리 이해 활동 두 가지와 원리 수행 활동 세 가지를 하게 된다.

원리 이해 1번 활동은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고, 연설의 목적과 연설의 역사적 상황을 정리해보는 활동으로, 제재의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2번 활동은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1)에서는 ‘마틴 루서 킹’의 이력을 통해 화자의 공신력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2)번 활동은 학생들의 감상 내용을 참고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사용된 설득 전략의 효과에 대한 학습을 돕고 있다. 즉 2번 활동은 목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리 수행 활동은 원리 이해의 2번 목표활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는 활동이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는 연설개요를 제시하여 이에 따른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1번은 화자의 공신력과 관련된 활동으로 (1)에서는 평소 자신의 성품과 평판이 공신력과 관련이 깊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자기 성찰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을 수행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는 제시한 개요로 연설을 할 때, 화자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져야 할 경험이나 자질,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연설의 목적·주제에 따라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경험과 자질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2번 활동은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을 주고, 제시한 연설개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 계획을 직접 생각해보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연설을 할 때, 설득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3번 활동에서는 1과 2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설을 해 보고 친구들의 연설을 평가하는 상호평가 활동까지 나아가도록 구성 하였다. (1)은 학습자들이 연설의 처음-중간-끝부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2)는 상호평가 활동으로 평가기준은 네 가지로 제시했으며, 상중하로 평가해 보는 활동이다.

<평가 기준>

- 연설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여 연설하였는가?
- 화자의 성품이나 평판, 전문성이 공신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연설하였는가?
-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감동적으로 연설하였는가?

연설자가 연설 준비에서 상황과 청중분석을 제대로 하였는지 평가하고, 설득 있는 연설을 위해 필요한 화자의 공신력과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평가하는 활동으로 구성 되었다. 상호 평가 활동을 통해 친구의 연설에 대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좋은 활동이다. 또한, 친구들과 끼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 발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반성적 성찰 통해 언어활동 개선 방향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자기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 풍성한 평가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지학사

학 습 목 표	Ⅲ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 2. 설득을 위한 화법 (1) 설득의 전략을 통한 연설 -학습 목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할 수 있다.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학습 활동</p>	<p>제재: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 빌게이츠</p> <p><원리이해></p> <p>1. 효과적인 설득의 전략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보자.</p> <p><원리 분석></p> <p>2.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를 읽고, 효과적인 연설 방법에 주목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p> <p>(1) 다음에 제시된 화자의 이력을 참고하여 ‘전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자.’ 라고 설득하고 있는 화자의 공신력을 평가해 보자.</p> <p>(2) 화자가 사용한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p> <p><원리 적용></p> <p>3. 자신이 학생회장에 출마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활동을 하며 연설 내용을 구상해 보자.</p> <p>(1) <보기>와 같이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어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연설의 도입 부분 내용을 구상해 보자.</p> <p>(2) <보기>를 참고하여 청중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p> <p>(3)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말을 해 보자.</p> <p>(4) (1)~(3)의 내용을 활용하여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설해 보자.</p>

지학사는 빌게이츠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 연설을 제재로 원리 이해·분석·적용의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1번 원리 이해 활동에서는 효과적인 설득 전략과 관련한 설명을 제시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로 확인하는 학습을 구성했다. 배운 내용을 활동을 통해 환기할 수 있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다.

2번 원리 분석 활동은 학습목표와 연결되는 효과적인 연설 방법에 주목한 활동으로, (1)에서는 화자의 이력을 참고하여 연설의 주제와 관련하여 화자의 공

신력을 평가해 보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2)번 활동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전략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3번 원리 적용은 1번과 2번 활동에서 제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3번에서는 실제 상황으로 ‘학생 회장에 출마하는’ 상황을 주었다. (1)번 활동은 풀잎의 유연함처럼 학교의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가겠다는 비유의 기법을 활용한 보기를 주고, 이와 같이 자신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입 부분을 구성해보도록 하였다. 문이론을 부분적으로 화법에 적용한 부분으로 의의가 있다.

(2)에서는 합리성과 공익성, 현실성과 관련한 보기를 주고, 이를 참고하여 연설에 활용할 수 있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직접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했다.

(3)번 활동은 자긍심과 욕구, 질투심이라는 단어를 학교와 연결한 보기를 주고, 감성적 설득 전략을 구상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 (4)에서는 (1)~(3)의 활동을 바탕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실제로 연설을 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천재(박)	
학 습 목 표	<p>Ⅲ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p> <p>2. 설득을 위한 화법</p> <p>(1) 연설과 설득 전략</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p>1. 다음 상황을 보고, 화자의 공신력에 관해 알아보자.</p> <p>(1) 의사와 학생의 답변 중에서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을 골라 보자.</p> <p>(2) 화자의 직업이나 말하는 내용이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p> <p>(3) 말을 할 때, 화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 보자.</p>

제재: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장애인 올림픽 개막 연설'

2. 다음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장애인 올림픽 개막 연설'이다. 연설에 나타난 설득 전략에 관해 알아보자.

(1) 이 연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고, 화자의 주장이 논리적인지 말해 보자.

(2) 이 연설에서 화자가 사용한 설득 전략을 파악해 보자.

(3) 이 연설이 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를 말해 보자.

3.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연설해 보자.

(1) 다음을 참고하여 연설의 주제를 정해 보자.

(2) 예상 청자를 정하고, 분석해 보자.

(3) 예상 청자를 고려하여 연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4)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

(5) 연설에서 활용할 설득 전략을 구상해 보자.

(6) (1)~(5)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 앞에서 연설해 보자.

(7)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모둠별로 친구의 연설을 평가해 보자.

천재(박)은 크게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성 하였다. 첫 번째로 화자의 공신력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설득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마지막은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직접 연설을 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한다.

1번 활동은 '암 예방 방법'에 대해 의사와 학생의 답을 비교해 보고, 화자의 직업과 말하는 내용이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에 왜 화자의 공신력이 중요한지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2번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장애인 올림픽 개막 연설을 제재로 설득 전략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1)은 연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주장이 논리적인지 파악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2)에서 화자가 사용한 설득 전략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3)에서는 이 연설이 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했다.

1번과 2번 활동에서 효과적인 연설의 필수 요소인 화자의 공신력과 설득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3번 활동에서는 이를 실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1)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참고해 연설 주제를 정하는 활동을 한다. (2)에서는 예상 청자를 정하고 그 청자를 분석하는 활동, (3)은 예상 청자를 고려해 연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활동을 구성했다. (4)에서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5)에서 연설에 활용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구상해 본다. 그리고 (1)~(5)의 활동을 통해 (6)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해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7)에서는 네 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잘함, 보통, 부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

-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 연설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 이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평가 기준은 비상교육에서 제시한 기준과 유사했다. 천재(박) 역시 친구의 연설을 평가해 보는 상호 평가활동만 제시하고 있었다.

3번 활동은 세부 활동이 총 7개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가 연설의 전 과정을, 직접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하지만, 너무 세분화된 활동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부분을 참고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네 개의 교과서 모두 연설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실제 연설을 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다만, 미래엔 교과서는 연설의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을 수정해보는 활동으로 대신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화법이 사용되는지를 고려해 학생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화법 능력’을 강조 하고 있었는데, 천재(박)을 제외한 세 교과서 모두 이를 고려하여 ‘학생회장 후보’ 연설을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천재(박)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등의 보기를 참고하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연설해 보도록 하였다. 세 교과서는 모두 ‘학생회장 후보’를 주제로 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연설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보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득을 위한 화법의 ‘연설’ 단원에서 생각 해 볼 부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18번 성취기준에 나타난 이성적 설득전략과 감성적 설득전략을 활용한 연설을, 연설문을 통해서만 학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연설 주제는 ‘학생회장 후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다. 본고는 이에,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을 밝혀 화법 교육에서 ‘설’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학 교과서에서의 이규보 ‘설’ 교육 양상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10종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미래엔, 비상(한), 좋은책 신사고, 해냄에듀에서 이규보의 ‘설’을 다루고 있었다. 이 네 출판사에서 이규보의 여러 ‘설’ 작품 중에서도 <이옥설>과 <괴토실설>, <경설> 세 작품을 제재로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었다.

1) <이옥설>

미래엔	
학	IV. 한국 문학의 흐름

<p>습 목 표</p>	<p>(3) 이옥설 -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이 시기 문학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다.
<p>학 습 활 동</p>	<p>1. 이옥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옥설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고려 후기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옥설에서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이규보가 관료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최씨 무신 정권의 무력에 의해 좌우되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몽고의 여러 차례 침입으로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며 저항했는데 고려 백성들은 전란으로 참혹한 고통을 당했다. 무신 집권층에서는 목숨을 바쳐 몽고에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가문만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는 이도 있었다.</p> </div> <p>2. 다음은 이옥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 내용을 자신의 처지에 적용하여 써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政事)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p> </div> <p>3. 공방전을 읽고, 이옥설과 비교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글을 쓴 목적에 관하여 두 작품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2) 표현 방식에 관하여 두 작품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p>

1번 활동은 <이옥설>을 읽고 내용학습을 하는 것으로 (1)번은 전반부와 후반

부의 내용을 비교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유추의 방법을 통해 집수리를 사람 일에 적용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에 적용하는 내용 구성을 살펴보도록 했다. (2)번에서는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와 연관 지어 이규보가 살았던 고려 후기의 역사적·사회적 상황(무신 집권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옥설>에서 이규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2번에서는 1번의 내용이해 활동을 바탕으로 <이옥설>의 주제의식, 깨달음을 자신의 처지에 적용해 사례를 직접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 활동은 가전체인 ‘공방전’과 비교학습을 통해 ‘설’과 ‘가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아래에서 고전수필의 한 갈래인 ‘설’을 학습하는데 충실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 내재적 측면 뿐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도 함께 고려하며 작품을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전수필의 또 다른 갈래인 ‘가전체’의 공방전과 함께 비교·대조를 통해 고전수필 갈래에 대한 이해를 도운 활동도 의미가 있다.

해냄에듀			
학습 목표	<p>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p> <p>2.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p> <p>(4) 교술 갈래의 흐름</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술 갈래의 특징 및 그것에 속하는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를 이해한다. • 한국 문학에서 교술 갈래의 전개 과정과 구현 양상을 이해한다. 		
학습 활동	<p>1.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p> <p>(1) 다음에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첫째 단락</td> </tr> <tr> <td>행랑채 _____</td> </tr> </table>	첫째 단락	행랑채 _____
첫째 단락			
행랑채 _____			

둘째 단락
사람_____

셋째 단락
정치_____

(2) 이 작품의 전개 방식과 관련지어 각 단락의 관계를 이야기 해 보자.

2.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알아보자.

(1) 이 작품을 작가가 경험한 내용과 깨달은 내용으로 나눈다고 할 때, 작가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보자.

(2)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에 담긴 작가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3. 다음은 고전 수필 양식 가운데 ‘기(記)’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1) 포화옥기에서 ‘집’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이옥설과 이 작품을 통해 ‘설(說)’과 ‘기(記)’의 교술 갈래적 특성을 말해 보자.

1번 활동에서는 중심내용파악과 <이옥설>의 내용전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1)번에서 핵심어를 바탕으로 단락별 내용정리학습을 하고 (2)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집수리를 사람에 적용하고 이를 정치로 확장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구성을 단락의 관계로 파악 할 수 있음을 활동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교술갈래의 전개 과정 및 구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2번 활동은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번에서는 <이옥설>과 같은 소재로 또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고전수필의 또

다른 갈래인 ‘기’(이학규, 포화옥기)와 비교하여 기와 ‘설’의 갈래적 특성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교술 갈래의 여러 역사적 갈래를 살펴봄으로써 학습 목표 수행을 도왔고, 같은 소재이지만 작가의 주제의식과 갈래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옥설>은 미래엔과 해냄에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명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당 성취기준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미래엔 교과서는 성취기준 (7), (8)을 학습목표로 설정하였고, 해냄에듀 교과서는 성취기준 (9)를 학습목표로 설정하였다. 학습활동은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보통 내용과 전개방식을 학습하고, 작가가 살았던 당대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보거나 하는 등 작가의 주제의식, 말하고자 한 의도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수필의 또 다른 장르인 ‘전’이나 ‘기’와 비교해봄으로써 전통적인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활동이 있다. 즉, 작품내용이나 작가에 관련한 학습과 작품의 갈래적 특징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고전문학의 한 갈래로서의 ‘설’을 배우는 데 충실히 하였다.

2) <괴토실설>

비상(한)	
학습 목표	1.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 (4) 교술 문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술 문학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교술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교술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다.
학습 활동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과 형식을 파악해 보자. 2. 다음과 같은 작가의 견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3. 다음 작품(괴토실설)을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과 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한 삼태기의 흙’(본문)과 비교해 보자. 4. 인터넷 게시판에서 위로나 조언을 구하는 글을 찾아보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예화로 들어 도움을 주는 댓글을 달아 보자.

본문 ‘한 삼태기의 흙’의 3번활동인 감상 넓히기 활동에 제시되어 있다. <괴토실설>과 성현의 ‘한 삼태기의 흙(타농설)’ 모두 ‘설’이라는 갈래에 속함을 알고, ‘설’의 특징을 학습하는 데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갈래여도 작가의 경험에 따라 그 가치관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그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본문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괴토실설>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괴토실설>을 ‘종들이 만든 토실을 허물게 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연의 이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밝힌 설’이라고 설명하며 ‘설’의 특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또, ‘작가는 실용성만 추구하며 자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고 이규보의 가치관도 함께 설명해 주어,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괴토실설〉은 비상(한) 교과서의 본문이 아닌 ‘타농설’의 활동에 수록되어 있다. 단원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으로서, 교술 갈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재구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2)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5)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문학과 수용의 생산 부분의 성취기준 (1), (2), (5)를 학습목표로 구성하고 있었다.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타농설’과 〈괴토실설〉에 나타난 작가의 가치관을 찾아내고 이를 표현한 표현방법을 비교해 보는 활동으로 되어있다. 가치관의 비교와 내용과 형식의 긴밀함을 살펴보는 활동은 학습목표를 잘 반영한 활동이다.

3) 〈경설〉

비상(한)	
학 습 목 표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 (4) 교술 문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술 문학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교술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교술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p><더 읽어보기></p> <p>‘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을 밝힌 설. 설의 갈래적 특징을 파악하며 감상해 보자.</p>

좋은책 신사고	
학 습 목 표	<p>Ⅲ. 문학과 삶</p> <p>3. 공동체적 문학</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학 습 활 동	<p><한 걸음 더 나아가기></p> <p>다음은 사물에 대한 열린 사고가 담겨 있는 한문 수필이다. 작가의 창의적 사고를 파악하며 이 글을 읽어 보자.</p> <p>* 이 글은 고전 수필의 한 갈래인 ‘설(說)’을 이용해 사물이나 사건에서 얻은 삶의 이치를 제시한 한문 수필이다. 이 글은 거울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보다는 숨어 있는 본질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 관점을 통해 작가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상만을 중시하는 세태를 은근히 풍자하는 느낌도 준다.</p>

<경설>은 비상(한) 과 좋은책 신사고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비상(한)에서는 위의 <괴토실설>과 같은 본문인 ‘한 삼태기의 흙’과 관련해 더 읽어보기 작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일상적 소재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설’의 갈래적 특징 파

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읽어보기 활동의 특성상 특별한 활동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위의 <괴토실설>과 함께 ‘설’의 갈래적 특성 학습을 위한 제재로 선택된 것은 생각해 볼만하다. 교술 문학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이규보의 ‘설’이 두 작품이나 활용된 것은, 교술 문학에서 이규보의 ‘설’이 중요한 의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책 신사고는 <경설>을 3단원, 공동체적 문학의 한걸음 더 나아가기에서 다루었다. 역시 별도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설>을 ‘작가의 창의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읽어 보자고 하는 것은 새롭다. 이규보의 참신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학과 삶]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15) 문학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과정을 보면, 문학과 삶 영역의 성취기준 아래에 수록되어 있다. 세부 성취기준으로는 (14)와 (15)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의 <경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설을 이용해 사물이나 사건에서 얻은 삶의 이치를 제시한 한문 수필’이라고 갈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작가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상만을 중시하는 세태를 은근히 풍자하는 느낌도 준다’는 주제 의식 및 작가의 가치관을 설명하며 작가가 공동체의 문제의식에 대해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반영한 문학 교과서에서 이규보의 ‘설’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단원 아래에서 해당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고전수필로서의, 교술 갈래의 한 역사적 갈래로서의 ‘설’을 학습하고 있었다. 문학 갈래로서의 ‘설’도 중요하지만, ‘설’의 ‘설득적 말하기’도 교육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Ⅲ. 설득의 개념과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

1. 설득의 개념과 ‘설’의 갈래적 특성

1) 설득의 개념과 방법

설득은 자신의 주장을 청자에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청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말하기 방식이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호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때 설득을 위한 화법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화법의 원리와 방법, 단계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점이나 견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¹¹⁾

설득의 기본이 되는 원리¹²⁾로는 상호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첫째, 상호성의 원리는 설득 화법이 다른 화법의 유형과 같이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거나 상대방에게 설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설득이라고 할 수 없다. 설득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

11)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3.

12) 전정미,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설득 화법의 원리와 방법」, 『화법연구』 제8집, 한국화법학회, 2005, 8-9쪽.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설>에서 이규보는 가상의 주객문답 상황을 통해 상호성의 원리를 실현하였다.

둘째, 공손성의 원리는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공손하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설득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원리이다. 이 원리는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대립을 최소화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지도 않고 욕구 수준도 만족시키는 설득이 되려면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이 공손이다. 이규보는 <슬견설>에서 ‘손’과의 갈등이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활용하였다.

셋째, 일관성의 원리는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원리이다. 설득의 메시지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진실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화자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말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설득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화자 자신이 설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규보는 <괴토실설>에서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였다.

설득의 방법¹³⁾에도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화자 중심적 방법은 화자 자신이 가진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상이나 체벌을 제시하는 방법, 과시하는 방법,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청자 중심적 방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한 친밀감을 나타냄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의 과정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의 베풀기, 친밀감 조성하기 등이 청자와 관련된 설득의 구체적인 방법

13) 전정미, 앞의 논문, 19쪽.

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중심 방법은 설득하려는 메시지 자체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면서 설득하는 것으로 인용이나 예시를 통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규보의 ‘설’을 이에 따라 분류해보면, <괴토실설>의 설득은 화자 중심적 방법에 해당한다. <경설>과 <슬견설>은 청자 중심적 방법과 메시지 중심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뇌설>과 <이옥설>, <주뢰설>은 예시를 통한 메시지 중심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

설득의 원리와 방법 외에, 청자나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담화와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않으면 청자나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설득을 위한 담화와 글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구조를 취한다. ‘문제-해결’ 구조는 담화나 글에서 다룬 문제 상황을 먼저 제기한 후,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 어느 범위까지 다룬 것인지 등에 대해 제시하는 단계
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그 방법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시하는 단계

또 다른 구조로는 동기화 단계 구조가 있다. 청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반영한 내용 조직의 방법으로 설득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동기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동기화 단계 구조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4)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3.

동기화 단계 구조 ¹⁵⁾	
1. 주의 환기 단계	<p>청자의 관심을 끌고 주의 집중시키는 단계로, 대담하고 기발한 표현을 하거나 유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놀라운 사실이나 뉴스 말하기, 청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던지기, 개인적 경험담 이야기하기, 참고품이나 증거물 등 실물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p> <p><예>¹⁶⁾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작스럽게 발병한 대장암으로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p>
2. 필요 단계	<p>청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왜 해결해야 하는지 인식시키고 그 문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p> <p><예> 최근에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특히 높아서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장암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되며, 그 발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p>
3. 만족 단계	<p>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청자를 만족시키고 앞으로 청자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p> <p><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과 식이 섬유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p>
4. 구체화 단계	<p>해결책을 제시하여 화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으며 거절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알게 한다.</p> <p><예>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p>
5. 행동 촉구 단계	<p>청자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구한다.</p>

	<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항암 효과가 높은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양파, 마늘이나 식이 섬유가 많은 고구마 등이 포함된 식단으로 바꿔 보십시오.
--	---

마지막으로, 설득 전략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말한 인격적 설득,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세 가지가 있다. 인격적 설득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화자의 공신력’과 관련된 설득 전략이다. 이성적 설득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증을 설득하기 위해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며,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감성적 설득은 청증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 등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전략이다. 화자는 청증을 설득하기 위해 청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고 호소하여 청증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이규보 ‘설’의 특성과 연결 지어 볼 것이다.

2) ‘설’의 갈래적 특성

설득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설’이 가지는 갈래적 특성과 이규보 ‘설’의 특성 및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문체명변』 「서설」에 설(說)은 해(解)이다. 술(述)이다. 의리를 해석하여 자기의 뜻을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⁵⁾ 즉,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설’은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은 ‘사리를 해명하는 글’로 주목적은 논지를 분명하게 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설득전략과도 관련되는 ‘설’

15)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2013, 179쪽.

16)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2013.

17) 진필상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182쪽.

의 특성으로, 설득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에 ‘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설’의 특성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전달과 설득의 대상으로서 독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은 독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장치와 전략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고도의 설득 구조 속에서 내용이 생성·조직될 수 있었다. 특히 ‘설’의 장르적 유연성은 우연, 일화, 풍유, 우의와 같은 다양한 표현 전략을 통해 사회를 풍자하거나 비판하고, 교훈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과거, 제약이 약했던 ‘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효과적인 통로와 매체로서의 장점을 가졌다.¹⁸⁾ 이는 오늘날의 설득적 말하기 학습에 ‘설’이 유용함을 증명해 준다.

또한, ‘설’은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작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서 학생들에게 문학의 감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교훈적 사상이나 정서 역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¹⁹⁾ 이와 같이 ‘설’이 가지는 갈래적 특성을 통해 ‘설’이 설득을 위한 글이며, 그러한 ‘설’이 설득적 말하기 학습의 제재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설’중에서도 이규보의 ‘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이규보 ‘설’이 가지는 특성과 교육적 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규보의 ‘설’은 동국이상국전집 제 21권에 <경설>, <주뇌설>, <기명설>, <슬견설>, <괴토실설>, <이옥설>, <뇌설>, <완격탐신설>, <논시설>, <칠현설>, <천인상승설>, <몽설>의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규보의 ‘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설’ 작품으로 여겨지는데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18) 최흥원, 앞의 논문, 10쪽.

19) 엄윤숙, 앞의 논문, 17-18쪽.

작품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체에 대한 실험 정신이 돋보인다. 또한 발상의 참신함을 통해 기존의 관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논지의 전개 또한 정당하다.

본고는 이규보의 12편의 ‘설’ 작품 중에서도 <경설>, <괴토실설>, <뇌설>, <슬견설>, <이옥설>, <주뢰설>을 통해 이규보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성적 설득 전략의 활용이 주를 이루는 작품은 <괴토실설>, <뇌설>, <이옥설>, <주뢰설>이 있고,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는 <경설>과 <슬견설>이 있다.

2. 문답·유추와 이성적 설득 <괴토실설>, <뇌설>, <이옥설>, <주뢰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와 논증이 중심이 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성적 설득 전략은 말 자체로 주장을 증명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자체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다른 누구에게 이 근거를 제시해도 다 진실임직하게 보이는 근거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말하는 자의 능력이자 특별한 기술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이성적 설득 전략을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 능력에는, 귀납적,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추론하는 유추 등이 있다. 또한 반박을 통해 논리의 실체를 파고드는 분석은 이성적 설득 전략의 논리성을 높인다.²⁰⁾

이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인 문답과 유추의 방법은 이규보 ‘설’이 갖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20) 김선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설득 담화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27-28쪽.

문답은 물음과 대답을 중심으로 ‘설’득하는 방식이다. 문답 방식은 두 인물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반전과 역‘설’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다.²¹⁾ 작품 속에서 문답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구현해 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독자를 ‘설’득해 내기 위함이다.

이규보의 ‘설’은 주로 주인과 손님 사이의 가상적인 대화 구조로 구성, 전개되는 특징을 갖는다.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개진하지 않고 설득의 대상인 손님을 문면에 등장시켜 그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독특한 전개 과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개진되는 것을 차단하고, 기존의 입장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들추어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²²⁾

즉, 이규보는 문답의 방식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탐구정신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개성 있는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작품 속의 상대방을 설득시킴으로써 글을 읽는 독자의 공감까지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²³⁾

이러한 문답의 방식을 설득에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괴토실설>이다.

10월 초하루에 이자(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하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21) 채수아, 앞의 논문, 16쪽.

22) 최홍원, 앞의 논문, 11-12쪽.

23) 이영옥, 「이규보 ‘설’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적용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47쪽.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土室)입니다.” 하기에,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하였다.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없이 때리겠다.” 하였더니, 아이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뿔나무를 마련했다. 그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²⁴⁾

24)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十月初吉。李子自外還。兒子輩鑿土作廬。其形如墳。李子佯愚曰。何故作墳於家。兒子輩曰。此不是墳。乃土室也。曰。奚爲是耶。曰。冬月。宜藏花草瓜蓏。又宜婦女紡績者。雖盛寒之月。溫然若春氣。手不凍裂。是可快也。李子益怒曰。夏熱冬寒。四時之常數也。苟反是則爲怪異。古聖人所制。寒而裘。暑而褐。其備亦足矣。又更營土室。反寒爲燠。是謂逆天令也。人非蛇蟻。冬伏窟穴。不祥莫大焉。紡績自有時。何必於冬歟。又

〈괴토실설〉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토실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당장 토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자(이규보)’의 모습을 통해 지나친 인위를 비판한다.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는 인간은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순응해야 하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²⁵⁾

이규보는 〈괴토실설〉에서 아이들이 만든 토실에 대한 화자와 아이들의 견해 차이를 문답법에 의해 전개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토실이라는 사물을 먼저 등장시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어서 이자와 아이들의 묻고 답함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아이들은 화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자각하고, 새로운 진리에 도달한다. 이에 아이들은 화자의 견해에 공감하여 토실을 허물고 땀감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괴토실설〉의 문답구조는 크게 기-승-전-결의 구성²⁶⁾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규보는 ‘기’에서 토실이라는 사물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시작하며 토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토실을 둘러싼 이자와 아이들의 갈등이 서서히 표출된다. ‘승’에서는 토실에 대한 이자의 의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으로 토실을 만든 이유를 실용성을 중심으로 기의 내용을 이어간다. ‘전’은 이자의 강변으로 토실의 불가함을 피력하는 단계로 작중의 아이들이나 예상독자의 예상, 즉 토실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뒤집는 반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자와 아이들의 갈등은 확연하게 부각된다. 마지막, ‘결’은 토실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고 평안을 되찾는 마무리 단계이다. 토실이라는 문제사물의 제기-토실의 유용성-토실의 해로움- 토실을 무너뜨림의

春榮冬悴。草木之常性。苟反是。亦乖物也。養乖物爲不時之翫。是奪天權也。此皆非予之志。汝不速壞。吾答汝不赦也。兒子等懼懼亟撤之。以其材備炊薪。然後心方安也。

25) 손동주, 앞의 논문, 33-34쪽.

26) 엄윤숙, 앞의 논문, 38-39쪽.

구조를 통해 전체적으로 토실을 둘러싼 일화와 작자의 주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이렇듯 이규보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서술해 나가지 않고 문답을 통한 우언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흥미와 설득력을 높였다. 그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이 사시사철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임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는 문답의 설득 전략을 활용한 설득적 말하기 방식을 <괴토실설>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답의 구조와 그 효과를 이해하고, 이규보와 같이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인물을 설정해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며 재밌고 유익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의 또 다른 방법으로 유추가 있다. 유추는 이규보의 ‘설’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설득 전략 중 하나이다. 유추란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설득 전략이다. 유추를 사용해 제시된 사실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생소하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친숙하고 단순한 대상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때 유추되는 두 대상이 긴밀한 유기성을 맺고 있어야 그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쉽게 전달되고 설득력을 가진다.

위에서 살펴본 <괴토실설>과 같이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규보의 ‘설’에서 유추에 의한 내용 전개는 작품 전반부에서 글쓴이의 체험이나 일화를 제시하고, 후반부에 그것과 관련된 보편적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유추와 함께 비유적 표현이나 비교, 대조, 예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물에 대한 생각과 그에 따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예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유추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추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추는 학습자의 사고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규보의 ‘설’에서는 사소한 경험도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노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사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인가를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유추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이규보의 ‘설’에는 <뇌설>, <이옥설>, <주뢰설>이 있다.

<뇌설>은 천둥소리에 두려워했던 경험을 통해 인격 수양의 어려움과 부단한 인격 수양의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둥이 울릴 때에는 사람들이 다같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뇌동(雷同)이라 한다. 나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다가, 여러 모로 잘못을 반성하여 별로 거리낄 만한 것이 없게 된 뒤에야 조금 몸을 펴게 된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일찍이 《춘추좌전(春秋左傳)》을 읽을 때 ‘화보(華父)가 눈으로 맞이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그를 나쁘게 여겼었다. 그러므로 노상에서 어여쁜 여자를 만나면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외면을 하고 달음질쳤다. 그러나 머리를 숙여 외면은 하지만 전연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니, 이것만은 스스로를 의심할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인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비난하면 언짢은 기색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천둥할 때 두려워할 거리는 아니지만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사람 중에는 암실에서도

마음을 속이지 않은 이가 있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 미칠 수 있으랴.²⁷⁾

〈뇌설〉은 유추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서두에 보편적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천둥이 칠 때 두려워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천둥소리를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을 절대자가 꾸짖는 것으로 비유하여 추리했다. 천둥의 큰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과 잘못이 있을 때 누가 큰 소리로 꾸짖으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작용하여 깜짝 놀라는 것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천둥소리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암실에서도 마음을 속이지 않은 이가 있었다.’라는 윤리의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확대시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규보는 천둥소리라는 소재를 통해 자기성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는데, 직접적인 소재는 자연현상인 천둥소리이고 간접적인 소재는 인간 행위인 여자 보기와 남의 평가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천둥소리에 놀라고,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기뻐한다. 이규보는 자신도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려면,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둥이 칠 때 놀란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고, 예쁜 여자 보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은 평소 마음속에 여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며, 타인의 평가에 기뻐하고 싫어한 것은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27)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天鼓震時。人心同畏。故曰雷同。予之聞雷。始焉喪膽。及反覆省非。未覓所嫌。然後稍肆體矣。但一事有略嫌者。予嘗讀左傳。見華父目逆事。未嘗不非之。故於行路中。遇美色則意不欲相目。迺低頭背面而走。然其所以低頭背面。是迺不能無心者。此獨自疑者耳。又有一事未免人情者。人有譽己則不得不喜。有毀之則不能無變色。此雖非雷時所懼。亦不可不戒也。古人有暗室不欺者。予何足以及之。

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내면을 수양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에 이규보는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는 의미가 없으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극복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학습자는 자연현상인 천둥소리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규보의 설득 전략을 학습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추상적 내용을 청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옥설〉에서는 집을 수리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개인의 수양과 나라의 개혁에 적용시키며 사고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 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 된 것은 서까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

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⁸⁾

〈이옥설〉에서 이규보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경험했던 일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사례를 드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을 수리하면서 느꼈던 점을 행랑채라는 평범한 소재를 통해 인간이 가져야 할 일반적 자세를 논하고, 정치의 개혁이라는 주제로까지 사고를 확장했다.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추의 설득 전략을 활용한 좋은 제재이다. 이규보는 처음에 비를 한 번 맞은 곳은 재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활용이 가능했는데, 비가 센 지 오래된 곳은 서까래와 추녀 기둥 심지어는 들보까지 썩어서 못쓰게 되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한다. 나아가 행랑채의 재목처럼 사람의 작은 잘못도 고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나라의 정치도 늘 준비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규보는 집을 고치면서 깨달은 교훈을 개인적 성찰로, 그리고 사회적 성찰로 적용시켜 가며 사고의 폭을 넓혀 적용하였다.

유추의 과정에서 [집 → 사람 → 나라]의 의미상 점층적인 구도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여 자연스러운 의미의 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학습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이규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28)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家有頽廡不堪支者凡三間。予不得已悉繕理之。先是。其二間爲霖雨所漏寢久。予知之。因循莫理。一間爲一雨所潤。亟令換瓦。及是繕理也。其漏寢久者。榑桷棟樑。皆腐朽不可用。故其費煩。其經一雨者。屋材皆完固可復用。故其費省。予於是謂之曰。其在人身。亦爾知非而不遽改。則其敗已不啻若木之朽腐不用。過勿憚改。則未害復爲善人。不啻若屋材可復用。非特此耳。國政亦如此。凡事有蠹民之甚者。姑息不革。而及民敗國危。而後急欲變更。則其於扶越也難哉。可不慎耶。

중요하다는 자신의 논리를 일화와 함께 제시하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학습자는 <이옥설>을 배운 후에 이규보의 유추의 방식을, ‘학교에서 배운 경험→ 자신의 실제 삶→ 학교 또는 사회’에 적용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적 말하기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옥설>은 어떤 이규보의 ‘설’보다도 내용적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주는 깨달음이 크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하다. 학습자는 이를 학습하며 이규보의 주장에 동화되는 자신을 통해 유추의 설득 전략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뢰설>은 조건이 같은 두 척의 작은 배가 강을 건너는데 술을 얻어 마신 사공의 배가 더 빨리 운행됨을 보았다는 일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규보는 술을 얻어 마신 사공의 배가 그렇지 않은 배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을 본 경험을 통해 뇌물이 없으면 관직을 얻지 못하는 현실로 사고를 확장하여 타락한 현실을 비판한다.

이자(李子 이규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

라 지속(遲速)·선후(先後)가 있거늘, 하물며 벼슬을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랴? 나의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²⁹⁾

〈주뢰설〉은 뇌물이라는 유사성을 통해 배를 짓는 사공에서 나라의 일을 보는 벼슬아치로 그 생각을 확장한다. 직접 체험한 일화로부터 그에게 유추되는 세상의 모순을 이끌어 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배로 강을 건널 때 사공에게 술을 먹여 배가 빨리 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돈이 없어 뇌물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에 나갈 수 없다는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규보는 〈주뢰설〉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자신의 처세에 문제가 있는 듯이 진술해서, 상대방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이규보가 주장하는 바는 그 이면에 있다. 세상은 뇌물이나 아첨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자신은 뇌물도 주지 않고 아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이 나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규보는 전반부에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 모순, 불일치 등의 인간적 상황을 통해 후반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흥미를 끌고, 그 후에 자신의 주장을 청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또한, 대조

29)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李子南渡一江。有與方舟而濟者。兩舟之大小同。榜人之多少均。人馬之衆寡幾相類。而俄見其舟離去如飛。已泊彼岸。予舟猶遭廻不進。問其所以。則舟中人曰。彼有酒以飲榜人。榜人極力蕩槳故爾。予不能無愧色。因歎息曰。嗟乎。此區區一葦所如之間。猶以賂之之有無。其進也有疾徐先後。況宦海競渡中。顧吾手無金。宜乎至今未霑一命也。書以爲異日觀。

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이규보의 모습, 나는 듯이 달아난 배와, 아직까지 머뭇거린다는 표현에 대조를 활용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학습자는 <주뢰설>을 통해 유추와 더불어 대조를 사용하는 전략이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주뢰설>의 마지막 부분인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열린 결말은 학습자가 주제적으로 해석할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 사고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3. 발상의 참신함과 감성적 설득 <경설>, <슬견설>

설득적 의사소통에서 논리적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서적 요소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설득적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이루는 다양한 정서적 요소가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에 관한 교육 내용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³⁰⁾

감성적 설득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근거를 통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서적인 틀을 부여하여 말하는 사람의 말에 동화시키는 기술이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감정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형성된 감정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감정에 기반을 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공감하였는지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의 여부이다. 설득의 핵심은 청자와의 공감대 형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해 설득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감정이 논리적이기 않은 측면은 있으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다. 설득의

30) 서예원, 「설득 담화의 수사적 문법 전략 교육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134쪽.

최종 목적은 청자의 태도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³¹⁾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감성이 특히 더 중시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만큼 감성적 설득전략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이규보의 ‘설’을 통해 효과적인 설득적 말하기를 모색해보자.

이규보는 ‘설’이라는 양식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그가 가진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한 사물과 체험담을 통해 ‘설’을 창작한 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일반화시키고, 더불어 독자에게 흥미와 공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³²⁾

〈경설〉에서 이규보는,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을 제재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울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조명하고 있다.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물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31) 김선영, 앞의 논문, 28-29쪽.

32) 손동주, 앞의 논문, 36쪽.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효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효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걸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피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³³⁾

거울의 특성은 ‘맑음’에 있다. 사람들은 깨끗한 거울을 통해 대상이 완벽히 비춰지는 것을 바란다. <경설>에서 이규보는 이러한 거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다. 흔히 거울은 맑고 깨끗해야 하며 깨끗한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위에 나타나는 거울은 먼지가 끼었다거나 흐릿한, 거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울이다. 손님이 보기에 흐릿한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고 있는 거사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설>의 ‘거사’는 오히려 흐린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희미함을 취한다.³⁴⁾ 손님의,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

33)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居士有鏡一枚。塵埃侵蝕掩掩。如月之翳雲。然朝夕覽觀。似若飾容貌者。客見而問曰。鏡所以鑑形。不則君子對之。以取其清。今吾子之鏡。濛如霧如。既不可鑑其形。又無所取其清。然吾子尚炤不已。豈有理乎。居士曰。鏡之明也。妍者喜之。醜者忌之。然妍者少醜者多。若一見。必破碎後已。不若爲塵所昏。塵之昏。寧蝕其外。未喪其清。萬一遇妍者而後磨拭之。亦未晚也。噫。古之對鏡。所以取其清。吾之對鏡。所以取其昏。子何怪哉。客無以對。

34) 손동주, 위의 논문, 30-31쪽.

은 거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관념이고 진리인 것이다. 희미한 거울은 이미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못하는 거울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거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손이 보고 있는 물질로서의 거울이 아니다. 거울은 이미 거사에게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거사만의 인식물인 것이다.³⁵⁾

이렇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흐린 거울을 거사는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며,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고 집중하게 한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반하는 거사의 행위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³⁶⁾

이 작품은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했지만, 그 의미는 일상적이지 않다. <경설>에서 손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것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보편적 진리일 수도 있다. 이규보는 이에 대해 과연 보편적 인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규보는 거울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표면에 드러난 사실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며,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상황과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적인 의미는 보편적 인식에 반대하는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며,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다’는 거사의 말에 주목해보면, 외면보다는 본성이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통찰

35) 최정숙, 앞의 논문, 30-31쪽.

36) 이영옥, 앞의 논문, 37-38쪽.

37) 엄윤숙, 앞의 논문, 40-41쪽.

력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규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유도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 보면, 좋은 세상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처세의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된다. 이는 곧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도 발전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개탄이면서, 그 속에 처세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³⁸⁾ 즉, 이규보는 거울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동시에 작가가 삶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담고 있다. 학습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개개인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가의 설득에 공감하게 된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처세관을 자신의 처세관과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도 있다.³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설>의 주변의 혼한 소재를 활용하여 기존의 고정된 생각을 깨트리는 방식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경설>은 사물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습자가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는 이렇게 사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을 둘러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말하기의 소재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이규보의 참신한 발상과 그에 따른 치밀한 논증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학습하며, 단순히 이론적 지식으로서의 감성적 설득 전략이 아닌, 삶과 연관되는 지식으로 내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8) 최홍원, 앞의 논문, 29-30쪽.

39) 윤미선, 「‘說’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규보의 ‘說’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42쪽.

〈슬견설〉에서도 이규보의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 이규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여기는 ‘이’의 생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여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한다.

어떤 손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자가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네.” 하기에, 내가 대응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이[虱]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것이네.” 하였더니, 손은 실망한 태도로 말하기를,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내가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에 말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것으로 대응하니 이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곤충·개미에 이르기까지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네. 그래서 그것을 들어 적절한 대응으로 삼은 것이지, 어찌 놀리는 말이겠는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겠는가? 한 몸에 있는 것은 대

소 지절(支節)을 막론하고 모두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동일한 것일세. 더구나 각기 기식(氣息)을 품수(稟受)한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그대는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봉새처럼 동일하게 보게나.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도(道)를 말하겠네.” 하였다.⁴⁰⁾

〈슬견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와 ‘개’를 소재로 생명체 소중함을 표현했다. 이규보는 다양한 비유물들과 ‘나’와 ‘손’과의 문답을 통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편견을 깬다. 개의 죽음을 보고 그 광경이 너무나 비참하여 다시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손’에게 ‘나’는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아 죽이지 않겠다고 대응한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인간과 친숙한 동물인 개의 죽음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의 죽음을 동일하다 할 수 있나 물음을 갖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개’와 ‘모기’의 죽음으로 생각해보면, 더 익숙할 것이다. 이규보는 이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작품 속의 손님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것은 중요하게, 크기가 작은 것은 하찮게 생

40) 한국고전번역원, 김동주 역, 1978.

客有謂予曰。昨晚見一不逞男子以大棒子椎遊犬而殺者。勢甚可哀。不能無痛心。自是誓不食犬豕之肉矣。予應之曰。昨見有人擁熾爐捫蝨而烘者。予不能無痛心。自誓不復捫蝨矣。客憮然曰。蝨微物也。吾見龐然大物之死。有可哀者故言之。子以此爲對。豈欺我耶。予曰。凡有血氣者。自黔首至于牛馬豬羊昆蟲螻蟻。其貪生惡死之心。未始不同。豈大者獨惡死。而小則不爾耶。然則犬與蝨之死一也。故舉以爲的對。豈故相欺耶。子不信之。盍齧爾之十指乎。獨拇指痛。而餘則否乎。在一體之中。無大小支節。均有血肉。故其痛則同。況各受氣息者。安有彼之惡死而此之樂乎。子退焉。冥心靜慮。視蝸角如牛角。齊斥鷃爲大鵬。然後吾方與之語道矣。

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적 현상들은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음으로 본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규보는 말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기 싫어하며 인간의 입장에서 크기나 친숙함의 상대적인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님을 전달한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달팽이 뿔과 쇠뿔, 메추리와 봉새를 예로 들어 그들도 모두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각임을 역설한다. 개와 이의 죽임이라는 표면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면적 진실, 즉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슬견설>은 이러한 우언적 ‘설’로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물에 빗대어 전달하고 있다.

<슬견설>에서 이규보는 대화상황을 통해 ‘손’으로 대변되는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예시와 비교·대조, 우언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규보가 ‘손’을 설득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설득의 올바른 단계를 익힐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규보 ‘설’의 교육적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역식으로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서두에서부터 명쾌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혀 논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했다.⁴¹⁾ 때문에, 학습자가 고전을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인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준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설득 전략으로 이규보 ‘설’의 방식을 모방을 할 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세계에 대한 폭 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고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보 ‘설’은 양이 많은 만큼 소재도 다양하며 다양한 소재가 여러 가지 주제로 형상화된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였다. 특

41) 서정화, 「이규보의 논변류(論辨類)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38집, 한국한문학회, 2006, 1-2쪽.

히 이규보의 ‘설’에는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고전이 주는 삶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이규보는 그의 ‘설’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답, 유추, 예시, 비교·대조, 우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는 여러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해 설득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규보는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 참신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시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였다. 학습자는 그가 사용한 방식들이 갖는 설득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득하는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규보 ‘설’의 특성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삶에 적용가능한 지식의 중요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IV. 이규보 ‘설’을 활용한 설득 전략 사례

설득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도록 반응을 이끌어내는 말하기이다. 설득이라 하면 보통은, 선거 유세나 연설·협상 등의 특정한 상황을 떠올린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부터 부모님께 외출 허가를 받는 것까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설득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 쉽게 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우리는 설득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 그 중 자신의 생각을 청중 앞에서 밝히는 연설은 설득 화법의 하나이다.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진술하여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친구들 앞에서 학급이나 학교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소력 있게 말하는 것, 청중 앞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 등이 모두 연설에 해당된다. 연설이라 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난 말솜씨로 청중을 휘어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설은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목소리만 높이는, 설득력 없이 주장만 일삼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즉, 설득적 말하기의 하나인 연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이규보의 ‘설’에 나타난 다양하고 참신한 화법적 글쓰기의 방법을 모방하며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⁴²⁾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설득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에는 논제나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이성적 설득만으로 설득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때에는 감성적인 설득으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감성적인 설득 방법에는 청자나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서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한다. 이 중 이규보의 ‘설’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정서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의 제재로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연설’ 단원에서 활용한 설득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적 사실을 통해 설득 • 설문조사, 통계자료 제시를 통해 설득 •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에 필요한 인용문을 통해 설득 •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사례나 상황제시를 통해 설득

42) 이상의 내용은 미래엔과 비상교육 <화법과 작문> 교과서 내용 참조.

위와 같은 설득 전략은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의 개념을 아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연설문 작성은 연설문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하지만, 2015 국어과 통합 교육과정의 목표를 완벽히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규보의 ‘설’을 활용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고, 문학과 화법의 통합은 학습자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규보는 자신의 ‘설’에서 위의 설득 방법 외에도, 가상의 상황 또는 직접 경험한 일화 제시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문답·유추·예시 등 다양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청자를 설득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규보의 ‘설’을 설득 구조인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분석해보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화법적 글쓰기 사례를 제시해 실제 화법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1. 이성적 설득 전략 사례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괴토실설>, <뇌설>, <이옥설>, <주뢰설>은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주의 환기 단계

10월 초하루에 이자(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말하기를,

② 필요 단계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하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土室)입니다.” 하기에,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하였다.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③ 만족 단계/④ 구체화 단계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헐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없이 때리겠다.”하였더니,

⑤ 행동 촉구 단계

아이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땃나무를 마련했다. 그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

주의 환기 단계는 청자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이다. <괴토실설>에서 이규보는 ‘토실’과 관련한 일화를 제시해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다음으로 필요 단계에서는, 이자와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 ‘토실’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만족 단계와 구체화 단계는 구분이 모호하다. 이규보는 이자의 말을 통해 ‘토실’을 만드는 것은 정상적 이치를 거스르고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실’이 괴이한 물건임을 밝히고, 빨리 헐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헐어버리지 않으면 용서 없이 때리겠다’는 말을 통해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손해가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손해를 입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마지막, 행동 촉구 단계에서 토실을 철거하고 ‘땃나무’를 마련한다.

① 주의 환기 단계

천둥이 울릴 때에는 사람들이 다같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뇌동(雷同)이라 한다.

② 필요 단계

나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다가, 여러 모로 잘못을 반성하여 별로 거리낄 만한 것이 없게 된 뒤에야 조금 몸을 펴게 된다.

③ 만족 단계/④ 구체화 단계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꺼림직한 일이 있다. 일찍이 《춘추좌전(春秋左傳)》을 읽을 때 ‘화보(華父)가 눈으로 맞이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그를 나쁘게 여겼었다. 그러므로 노상에서 어여쁜 여자를 만나면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외면을 하고 달음질쳤다. 그러나 머리를 숙여 외면은 하지만 천연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니, 이것만은 스스로를 의심할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인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비난하면 언짢은 기색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천둥할 때 두려워할 거리는 아니지만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⑤ 행동 촉구 단계

옛날 사람 중에는 암실에서도 마음을 속이지 않은 이가 있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 미칠 수 있으랴.

〈뇌설〉은 주의 환기 단계에서 ‘천둥이 울릴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두려워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천둥소리가 겁나지 않음을 이야기 한다. 이를 통해 청자는 이규보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 만족·구체화 단계에서 역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화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남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학생들 뿐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더욱 예민하며, 경쟁을 통해 남에게 나를 돋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

이다.

① 주의 환기 단계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 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② 필요 단계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 된 것은 서까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③ 만족 단계/④ 구체화 단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⑤ 행동 촉구 단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옥설〉에서는 자신의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청자의 이목을 끈다. 이어서, ‘비가 샌지 오래 된 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비를 한 번 맞은 것은 경비가 적게 들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집수리’ 문제에 대해 청자가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옥설〉은 만족 단계와 구체화 단계가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를 예시로 든 부분에서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예시를

통해 이규보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발견한 즉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한다. 이는 우리에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익숙한 명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 명언과 달리 <이옥설>에서 이규보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여 청자를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였다.

- ① 주의 환기 단계
 이자(李子 이규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 ② 필요 단계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 ③ 만족 단계/④ 구체화 단계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遲速)·선후(先後)가 있거늘, 하물며 벼슬을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라? 나의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생각하매,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 ⑤ 행동 촉구 단계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

<주뢰설>도 <이옥설>과 같이 주의 환기 단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자는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널 때 본 나란한 두 배가,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한데 속도에 차이가 남을 궁금해 한다. 이에 한 사람이 이자에게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 사공

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임을 알려준다. 청자는 필요 단계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흥미를 가질 것이다. 만족·구체화 단계에서 이규보는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에도 뇌물의 역할이 중요한데 벼슬은 오죽하겠냐는 말을 통해, 돈 없는 자신이 하급 관직 하나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함을 인정한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규보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규보는 반대로 <주뢰설>을 통해 벼슬을 가짐에 있어 ‘능력’이 아닌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을 비판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이규보의 ‘설’을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만족 단계와 구체화 단계는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조건 이 단계에 맞게 연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에 맞춰 연설문을 계획하면 좀 더 쉽게 말하기 순서를 조직할 수 있음을 학습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성적 설득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학습활동〉

1. ‘문제-해결’ 구조에 따라 <괴토실설>을 분석해 보자.

* 해당 부분의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쓰시오.

◆문제

- ① 10월 초하루에 이자(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 ②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해결

①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배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② 그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였다.

2. 다음 보기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문제-해결’ 구조에 맞게 작성해 보자.

〈보기〉

청소년 비행	임산부 배려석	야간 자율학습
--------	---------	---------

주제: 청소년 비행

◆문제

최근 청소년과 관련한 학교 폭력, 음주와 흡연 등 비행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선생님, 사회가 비행청소년들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말’을 진심을 다해 들어주어야 한다.

3. 2번 활동을 바탕으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 설득 연설을 해 보자.

* [① 학교에서 배운 경험→ ② 자신의 실제 삶→ ③ 학교 또는 사회]로 사고를 확장하여 적용하시오.

① 학교에서 식물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두 개의 똑같은 화분이 나왔습니다. 한 화분에는 물을 잘 주고 관심과 정성을 다해 키운 반면 또 다른 화분에는 물도 잘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② 이 영상을 보며 문득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누나의 입시로 모든 관심이 누나에게 쏠려 부모님이 저에게는 무관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반항심이 커지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잘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실 때는 기분이 좋아 무엇이든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③ 이 경험을 통해 ‘비행청소년들도 화분이나 나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사회가 비행청소년들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말’을 진심을 다해 들어준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활동은 ‘문제-해결’ 구조로 분석해 보는 활동이다. ‘동기화 단계’ 구조의 경우에는 5단계로 나뉘는 활동이어서 학습자가 처음에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순한 구조를 이해한 뒤에 복잡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다. <괴토실설>에서 ‘문제’는 아이들이 흙을 파서 집 안에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고,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좋은’ 토실을 만든 상황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이 상황을 ‘문제’로 만드는 것은 ‘이자’의 말이다.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는 ‘이자’의 말을 통해 이규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토실’이 문제임을 청자에게 일깨워준다. 해결은, ‘옛 성인’과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예시를 통해 ‘빨리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

를 용서 없이 때리겠다’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자’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토실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뿔나무를 마련한다. 이규보는 ‘그리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였다’라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려준다. 2번 활동은 1번 활동을 토대로 직접 주제를 선택하여 ‘문제-해결’ 구조에 맞게 계획해 보는 활동이다. 아무런 ‘보기’가 없으면 학습자가 막막할 수 있어, 학생들과 밀접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2번 활동을 통하여 3번 활동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인, 유추를 활용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추는 이규보의 ‘설’ 중에서도 <이옥설>에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이옥설>을 학습한 학습자는 제시된 조건을 활용하여 설득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로 제시한 것은, 학교에서 식물에 관한 영상을 본 경험을 나의 실제 삶에 적용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로 확장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연설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이성적 설득 전략을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설득 연설을 할 수 있다.

2. 감성적 설득 전략 사례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경설>, <슬견설>을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의 환기 단계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묻기를.

② 필요 단계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

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③ 만족 단계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④ 구체화 단계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나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걸만을 흐리게 할 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⑤ 행동 촉구 단계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경설〉은 주의 환기 단계에서 ‘거사’가 먼지 끼어 희미한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단장하는 상황을 제시해 청자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다음으로 필요 단계는 ‘손’의 물음을 통해, 청자에게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인데, 거사의 거울은 희미해 비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거사는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만족 단계에서는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는데, 못생긴 사람이 더 많다’는 거사의 말을 통해 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구체화 단계는 해결책을 제시해 청자가 화자의 말대로 했을 때의 이익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손해를 알게 하는 단계로, 이규보는 ‘거사’의 말을 통해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 번 들여다보게 되면 거울이 깨지니 먼지가 끼어 희미한 것만 못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닳여져도 시기가 늦지 않다'고 청자에게 흐린 거울을 취하는 것이 나은 것임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행동촉구 단계에서는 '옛날 거울을 대 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사'의 말을 통해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① 주의 환기 단계

어떤 손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자가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네.” 하기에, 내가 대응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이[飈]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것이네.” 하였더니, 손은 실망한 태도로 말하기를,

② 필요 단계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내가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에 말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것으로 대응하니 이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③ 만족 단계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곤충·개미에 이르기까지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네. 그래서 그것을 들어 적절한 대응으로 삼은 것이지, 어찌 놀리는 말이겠는가?

④ 구체화 단계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겠는가? 한 몸에 있는 것은 대소 지절(支節)을 막론하고 모두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동일한 것일세. 더구나 각기 기식(氣息)을 품수(稟受)한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⑤ 행동 촉구 단계

그대는 물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봉새처럼 동일하게 보게나.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도(道)를 말하겠네.” 하였다.

〈슬견설〉에서는 ‘개’와 ‘이’의 죽음에 대한 손과 나의 대화를 통해 주의를 청자의 주의를 끈다. 이어 필요 단계에서 손이, ‘이’는 미물인데 큰 물건이 죽는 얘기를 한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통해 청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족 단계에서 이규보는 ‘혈기가 있는 것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죽음을 싫어하고, 따라서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개와 이의 죽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청자에게 제시하였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실제로 열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모두 아픔이 동일하다는 보다 청자에게 익숙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자에게 작은 것과 큰 것은 차이가 없음을, 동일함을 깨닫게 한다.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이규보의 ‘설’을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나누어 본 결과, 각 단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적 설득 전략에 이어, 감성적 설득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학습활동〉

1. 다음 기사를 ‘동기화 단계’ 구조에 맞춰 나누어 보자.

* 해당 부분의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쓰시오.

8월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서울 한 고등학교의 일정표입니다. 3박 5일 일정의 캄보디아, 첫날밤에 도착해서 둘째 날은 관광, 셋째 날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넷째 날 현지 학교 등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일정인데, 비용은 122만 원입니다. 역시 환경 정리 같은 봉사활동이 포함된 백두산 일정은 124만 원, 그나마 싸다는 중국 서안과 상해 역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내 여행지는 아예 선택지에 없어서 학부모에겐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이 학교는 전체 360명 넘는 학생 가운데 100명 정도가 올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데, 상당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이 아이들에겐 수학여행은 추억이 아닌 상처가 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도 괜히 미안합니다.

외국으로 수학여행 가는 학교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한 고등학교는 450만 원짜리 미국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고가의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의 평균 경비가 저렴한 국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보다 60배나 더 비쌌습니다.

수학여행은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서 여행지를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에도 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김종원 기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20428&plink=ORI&cooper=N AVER



1. 주의 환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서울 한 고등학교의 일정표입니다.
2. 필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박 5일 일정의 캄보디아, 첫날밤에 도착해서 둘째 날은 관광, 셋째 날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국내 여행지는 아예 선택지에 없어서 학부모에겐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3. 만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여행은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서 여행지를 골라야 합니다.
4. 구체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학교는 전체 360명 넘는 학생 가운데 100명 정도가

	<p>올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데, 상당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고가의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의 평균 경비가 저렴한 국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보다 60배나 더 비쌌습니다.
5. 행동 촉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계속된 논란에도 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 1번 활동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설득 연설을 해 보자. (<경설>에 나타난 설득 전략을 사용할 것.)

세상은 좁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큰 것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ㄱ’을 읽지 못하면서 ‘가’를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도 모르면서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의 중요성은, ‘군자’에게 요구되었던 ‘수기치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제대로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정도 잘 가꿀 수 있으며,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좁게 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

1번 활동은 기사문을 ‘동기화 단계’ 구조에 따라 분석해 보는 활동이다. 이성적 설득 전략 활동에서 <괴토실설>로 학습해 보았으니, 감성적 설득 전략 활동에서는 ‘설’이 아닌 기사문을 제시하였다. ‘설’ 학습도 좋지만, 학습자에게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단계에 따라 내용을 나눌 때, 모든 단계를 빈칸으로 두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환기 단계’와 ‘구체화 단계’를 힌트로 제공하였다. 이 기사문은 만족 단계와 구체화 단계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는 각 단계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활동 전에 이러한 교사의 안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번 활동은 1번 활동의 기사문을 활용하여 연설을 해 보는 활동이다. 1번 활동 기사문의 ‘행동 촉구 단계’를 보면, ‘교육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 당국’에게 확실한 지침을 내릴 것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는 것이다. 이때, 이규보의 <경설>에 나타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도록 조건을 주었다. 본고는 2번 활동에서, ‘세상은 좁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통해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발상의 참신함을 보여주었다. 보통은 ‘세상을 넓게 보라’는 말이 기존의 생각이다. 이를 뒤집어, ‘세상을 좁게 보라’는 주장을 통해 ‘교육 당국’에게 수학여행지로 ‘국내’도 적합함을 설득하였다. 학습자들은 <경설>과 <슬견설>에 나타난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청자를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또한 창의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개인의 말하기 능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말하기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이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사고 과정 및 그 실천 행위이다. 이러한 말하기는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들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고 과정이다.

그 중, 본고는 설득적 말하기에 대해 다루었다. 설득이란 화자가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을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말하기이다. 설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에 연설이 있다. 연설은 교과서에서 다양한 설득전략과 함께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II장에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할 때, 화법 영역의 설득적 말하기 중에서도 ‘연설’ 단원에 초점을 맞춰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박), 미래엔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교과서에서 연설 학습을 위한 제재로

‘연설문’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설득의 제재로 ‘설’이 활용될 수 있음을 탐색하고자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이규보 ‘설’의 학습양상을 분석하였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설’을 문학의 한 갈래로만 배우고, 학습활동에서도 ‘설’의 설득 전략을 알아보는 활동은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국어 교과에서의 통합교육 실현의 한 방법으로 이규보의 ‘설’의 화법 교육적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이성적 설득 전략인 문답과 유추의 활용양상을 찾아보고, 감성적 설득전략이 사용된 예로 이규보 ‘설’에 나타나는 발상의 참신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설득 전략은 연설문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규보의 ‘설’을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학습이 가능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이규보의 ‘설’을 설득 구조에 따라 분석하여, 학습자가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이 실제로 구현되는 양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아가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청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연설 활동이 가능함을 보이하고자, 설득 전략을 활용한 연설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화법 교육에 문학의 한 갈래인 이규보의 ‘설’을 활용하는 것이, 2015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학습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규보의 ‘설’은 문학의 제재 또는 글쓰기의 제재로 많이 활용되었고, 그런 측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규보 ‘설’을 ‘설득’의 제재로, 화법 교육과의 연관성을 들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수학습지도안을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설득적 말하기와 이규보 ‘설’의 통합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법과 문학의 통합의 한 방법인, 설득적 말하기 활동에서의 이규보 ‘설’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익히고 화법능력을 신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교과서 자료

-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3.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3.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3.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2013.
김동환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미래엔, 2013.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2013.
이삼형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지학사, 2013.
박영목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천재교육, 2013.
김동환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2013.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2013.

2. 단행본

- 류수열 외 6인, 『개념이 있는 국어완성』, (주)금성출판사, 2016.
진필상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조동일 외, 『국문학의 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2013.

3. 학술지 논문

- 김진영, 「이규보 문장의 제재와 특성」, 『태릉어문연구』 제2집,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83.
- 김병수,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제와 전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 김창원,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양상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논제」, 『한국초등국어교육』 제6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6.
- 박영민, 「2015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안 : 중학교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5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4.
- 서정화, 「이규보의 논변류(論辨類)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38집, 한국한문학회, 2006.
- 신연우, 「이규보의 ‘설’ 읽기의 한 방법」, 『우리어문연구』 제11권 제1호, 우리어문학회, 1997.
- 우지영, 「문답식 산문의 특징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제50집, 동방한문학회, 2012.
- 이승복, 「기와 설의 수필 문학적 성격 - 이규보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55집, 한국어교육학회, 1995.
- 이창덕, 「음성언어 생태와 듣기, 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2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3.
- 장은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언어기능 영역 성취기준 적합성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 전은주,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상과 과제-화법」, 『국어교육학연구』 제51권 제1호, 국어교육학회, 2016.
- 전정미, 「화법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설득 화법의 원리와 방법」, 『화법연구』 제8집, 한국화법학회, 2005.

정상섭, 「화법교육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개념과 내용의 수용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8권 제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8.

최홍원, 「설(說)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 교육의 실행 가능성 탐색」, 『문학교육학』 제 5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4. 학위논문

기다은, 「화법과 작문 토론 단원의 성취기준 구현 양상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김서아, 「화법교육의 정체성과 방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김선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설득 담화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김지민, 「이규보 수필 교육 방안 연구 : 說·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김하정, 「고전 수필의 교육 내용 연구: 이규보의 ‘說’양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문광철, 「李奎報의 ‘說’을 통한 고전산문교육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문채연, 「고전수필 교육 개선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2005.

박은희,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하여: 중학교 교과서 분석과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서예원, 「설득 담화의 수사적 문법 전략 교육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손동주, 「이규보의 ‘說’ 교육 방안 연구-읽기·쓰기 통합 지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어은주, 「역량 중심의 통합적 문학교육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엄윤숙, 「‘說’ 문학의 교육적 활용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윤미선, 「‘說’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규보의 ‘說’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윤송이, 「2009 개정과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내용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이미진, 「인물을 제재로 한 說의 특징과 작품 양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이민지, 「고전산문의 문학교육적 가치 연구: 교산, 연암, 다산의 산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이영옥, 「이규보 ‘說’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적용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정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득적 말하기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6.
- 이지영,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7, 2009, 2015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토대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정다와, 「설득하는 말하기 지도방법 연구-비판적 읽기를 활용하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정은진, 「이규보 설의 글쓰기 방식과 교육적 적용」,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조혜란, 「2015 통합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5.
- 주미정, 「고전문학에서 독서토론의 필요성과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채수아, 「이규보 ‘설’의 교육 방안 연구-반응 중심 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최영인, 「설득 화법의 청중 고려 양상과 교육적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최윤정, 「고등학교 화법에서의 연설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최정숙, 「이규보 산문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on education indicated in the Lee, Kyu-bo theory

Chun Min-Ha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society is diversified and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speak is beyond personal dimension and its importance is increasing in social dimension. To say it is a thought process and a practical action that speakers express linguistically / nonverbally to those who hear their thoughts and emotions. These speaks are highly thought processes including various knowledge, skills, attitudes.

Among them, this article touched persuasive remarks. It is a persuasion and the speaker to change the thought, emotion, behavior, etc. of the listener with a conscious intention. There is a speech in a representative type that is done for the purpose of persuasion. Speech is learned in textbooks, along with various persuasion strategies.

Therefore, in Chapter II, when analyzing the current textbooks, in the field of narration, Visang education, Jihakusa, Chunjae(Park) will focus on the "speech" section while speaking persuasively, analyze textbooks of the yen method in the future did.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we use only

"speech" by sanction for speech learning in all textbooks. This article analyzes the learning aspect of Lee Kyu-bo's "theory" in the current literature textbook in order to explore the use of "theory" by persuasion sanctions. In the current textbooks, there was no satisfaction that learned only the book of literature as the "theory", there is no activity to investigate the persuasion strategy of the "theory" also in learning activity.

In Chapter III, based on the contents of Chapter II analysis,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on education set by Lee Kyu-bo in a way to realize integrated education in the languag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2015. Examining the novelty of the idea displayed in Lee Kyu-bo's "theory", which searched the strategic question and answer of reasonable persuasion and the utilization aspect of analogy, and the use of the sentiment-persuasion strategy. As a result, the strategy of persuasion can not only be learned through a speech, but through the "theory" of Lee Kyu-bo, it enables a higher-dimensional learning.

Finally, in Chapter IV, we analyzed the "theory" of Lee Kyu-bo based on the persuasion structure and helped the learner to directly confirm the aspect in which the intelligent and sensitive persuasion strategy was actually implemented. Furthermore, we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 speech activity to effectively persuade the celadon by applying this to actuality, and presented a lecture case that utilized the persuasion strategy. By doing this, it is appropriate to utilize the "theory" of Lee Kyu-bo, which is one of the literature of narration education at the actual teaching site, suitable for the creative · amalgamative learning required by the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in 2015 I found out.

Lee Kyu-bo's "theory" was widely used for sanctions on literature and sanctions on lighting, and much research on that point was done. In this research, it is meaningful to hear and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Lee Kyu-bo's "theory" and "narration education" as a subject of "persuas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not applying it to the actual teaching site through the teaching instruction teaching plan. In a subsequent research to speak persuasively, studies to seek an integrated teaching plan of Lee Kyu-bo "theory" must be performed vigorously. We hope learners acquire effective persuasion strategies and extend the capacity of the narration through learning Lee Kyu-bo "theory" in persuasive talking activities, a way of integrating narration and literature.